

## 한국, 중국과 홍콩 성인여성의 속옷 선호색상 비교 연구

차 수 정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패션전공 교수

## Comparison of innerwear color preference among the Korea, China and Hong Kong

Cha Sujoung

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Major of Fashion, Woosong Univ.

### Abstract

This study intend to research color preferences about innerwear(specially brassiere) and draw a comparison of color preference's differences among the Korea, China and Hong Kong. The subjects of study are female students of universities in Korea, China and Hong Kong. The data analysis was done with the statistical treatment in SPSS 14.0,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emale students of universities in Korea, China and Hong Kong are distinguished from wearing color and preference color of innerwear. Korea and China female students prefer skin color to the other color but most of Hong Kong female students prefer black color. In case of red color, Korea female students don't select a red color as a preference color but even if some students select a red color, China and Hong Kong females prefer a red color.

The traditional color opinions of Korea, China and Hong Kong are the same as a Yin-Yang School. But these days they have different color opinions because of cultural, political and ideological elements.

Korea females like skin and white colors because these colors don't appear on the outwear surface. Korean have an inclination toward conservatism and use the color according to ideological and deceptive orders of the Confucianism. Hong Kong have a different color preference from China because they have chances of receiving the other cultures for example United Kingdom, Japan and so on.

**Key Words** : color preference(색상 선호도), innerwear(속옷), comparison(비교), culture(문화)

## I. 서론

사회와 문화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패션은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으며, 가격보다는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색상은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디자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움을 주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지며, 가장 민감한 감성으로서 인간의 심미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분야이다.

색은 자연환경, 역사적 정체성, 인간의 심리와 건강 등 다차원적 의미와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매체이며, 형태보다 더욱 다양하게 이해되고 해석되는 요소이다. 색상은 동시대의 시대정신과 사회사상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한 문화권에서는 공유되는 색상 유형은 기후와 풍토 등의 자연적인 요인, 그리고 사상과 관습, 시장과 산업, 재료와 기술, 제도와 법규 등 한 시대와 사회의 총체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적 산물이다.<sup>1)</sup> 따라서 색은 언어와 지역문화, 종교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sup>2)</sup>

의복색상은 그 의복을 입는 사람의 인상과 의복의 특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복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소비자가 의류상점에서 상품을 선택할 때 거치는 의사결정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흥미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up>3)</sup>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에서의 색상은 개인의 성격, 연령, 성별 등을 구별해 주며,<sup>4)</sup> 개인의 기호, 개성, 심미안, 심리상태, 문화적 배경 등을 나타낸다.<sup>5)</sup> 색상 선호도는 개개인의 경험에 의해 이룩된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취미 판단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색상 선호도에는 지역이나 민족, 연령, 제품, 유행 등 여러 영향 변인에 따라 공통되는 어떠한 경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의복선호색상에 대한 연구에는 여성복이나 남성복, 캐주얼에 대한 색상선호도는 있으나<sup>7)8)9)10)11)12)</sup> 속옷에 대한 선호색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중국과 홍콩 여대생들의 속옷 중에서도 브라지

어에 대한 선호색상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국가별 속옷에 대한 선호색상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색상선호

인간은 각기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전통 속에서 각 민족이 갖는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정신문화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표현된다. 즉,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그 환경이 가지는 문화, 심리, 민족적 정서, 사회적 관념에 의해 생활과 태도, 감성, 식습관 등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는 색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색상 선호도나 색상의 사용에 있어서 민족의 전통적인 관습을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색상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데, 자연환경, 사회문화, 염료의 발달 등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경제 환경 등이 있다. 비렌은 색채기호에 대한 집단의 유형을 지역, 민족, 성별, 연령, 소득, 교양, 유행, 생리학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sup>13)</sup>

먼저 성별 및 연령을 살펴보면, Ellis, L. & Ficek, C.(2001)가 북아메리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별에 따라 파란색의 경우에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파란색을 선호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 여성은 분홍색,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는 남자 아기에게는 파란색 옷을, 여자 아기에게는 분홍색 옷을 입히는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보이며, 파란색 옷을 입었던 남자 아기들은 성장한 후에도 파란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sup>14)</sup> Silver et al.(1988)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 파란색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선호도가 더 높았다. 또, 남성의 빨간색에 대한 선호도 여성이 분홍색이나 검정색을 선호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sup>15)</sup> 그러나 노인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색상선호에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sup>16)17)18)</sup> 연령에 따른 색상 선호도의 차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원색계열과 밝은 색

조의 장파장을 선호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단파장을 선호하였다.<sup>19)</sup> 백선원(1989)은 20대는 검정, 흰색 순으로 선호하고, 30대는 검정, 빨강, 40대는 흰색, 빨강, 그리고 50대는 연분홍, 파랑 순으로 선호한다고 하였다.<sup>20)</sup>

색상선호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장지명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인은 옥색과 흰색, 이탈리아인은 청색과 진회색 등을 선호하며 많은 유럽인이 검은색을 기피한다고 하였다.<sup>21)</sup>

기후에 따라서도 색상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열대지방의 사람들은 난색계에 속하는 적색과 황색을 좋아하는 반면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의 사람들은 한색계에 속하는 백색과 청색 같은 색채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또한 온대지역의 주택들은 흔히 주홍색, 분홍색, 담갈색 등 따뜻한 느낌의 색을 사용하여 장식하지만 고위도의 추운 지방 주택들은 차가운 색채인 백색이나 담청색 같은 색채들을 즐겨 사용한다고 하였다.<sup>22)</sup>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를 민족 종교로 가지고 있는 중국, 인도, 미얀마, 필리핀, 태일랜드 등과 같은 아시아민족은 주로 적색과 황색을 선호하였으며, 이슬람종교가 대다수인 서남아시아의 국가들은 녹색과 청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3)</sup>

소득에 따라서는 고소득층은 섬세하고 미묘한 중간색과 짙은 어두운색을 선호하고 색상선택 시 다양한 색을 선택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고채도, 고명도의 선명한 색상과 순색을 좋아하고 색상선택 시 선택하는 색상의 종류가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4)</sup>

## 2. 한국의 선호색상

한국 문화의 바탕은 고유의 자연숭배사상과 천지신명이라 불리는 천신 숭배사상, 샤머니즘과 무교 등이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원시신앙이 한국사회의 문화적 기반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기반에 따라 한국의 색은 대체로 백색계열로 의복에 있어서도 백색이었고, 삼베, 무명, 모시 등은 자연의 색 그대로를 사용하였다. 백색이란 자연의 소재를 그대로 사용한 것도 백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백, 난백, 유백, 회백 등 모든 백색계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은은한 것이 특징이다.<sup>25)</sup> 이러한 경향

때문에 한민족을 가리켜 ‘백의민족’이라 일컫는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선호색상과 혐오색상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백색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에서 백의민족으로서 흰색을 숭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한국의 색이 형성되기까지 주로 영향을 끼친 것을 3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 유교적인 사고방식 둘째, 자연과 기후의 영향 셋째, 생활환경을 들 수 있다.<sup>27)</sup>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자연주의에 의해 단순하고 소박하며 실용성을 나타내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색을 선호하였다. 또, 이는 순수한 한국인의 한사상(韓思想)에서도 볼 수 있으며 외래의 사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한국인의 사상으로 ‘크다, 밝다, 희다, 동쪽, 많다’라는 의미와도 통한다.<sup>28)</sup> 백(白)은 결백과 진실, 삶과 낮, 순결 등을 뜻하며, 우리 민족의 백의는 사별을 뜻하지만 세속을 벗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기원한다는 뜻에서 입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의복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백자나 실내공간에서 창호지, 장판 등에서도 백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같은 동양 민족들 중에도 각 국가별로 역사가 형성되면서 색상에 대한 연상과 상징이 각기 다른데 백색에 대한 반응만 하여도 한민족은 소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백색은 자연에 동화하는 색 자연에 귀의하는 색으로 여겨서 무척 애용하였다. 반면 중국인들은 백색을 상색으로 불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sup>29)</sup>

한국인의 전반적인 색상선호는 한색계열의 밝고 부드러운 톤의 소프트(soft)한 이미지의 색상이 많았다. 한국인은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자연주의에 의해 백색의 선호와 자연에서 보여 지는 단순하고 소박한 색상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 3. 중국의 선호색상

중국의 전통문화는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색상에 대한 이해 또한 독특한 점을 띠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오방색을 중심으로 강렬한 원색계열의 채도가 높은 빨강이나 흑색 그리고 청색을 선호하였다.<sup>30)</sup> 색상은 방위와 상호 대응되는 관계를 가지면서 방위의 길흉(吉凶)과 안위(安危)와도 같은 뜻이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색상과 시

간이 상호 연계되면서 인류의 생활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절기와 명절이면 사람들은 감정 표현의 상징으로 붉고 푸른 색상의 복식을 차려입고 초롱을 달며 오색 천으로 장식하는 등 기쁨과 희열의 표현방식으로 되어 왔던 것이다. 또, 오방색에서의 색상은 사계절과도 연계되어 있어 청색은 봄, 적색은 여름, 백색은 가을, 흑색은 겨울을 나타낸다. 흑, 적, 청, 백, 황 오색은 또 수, 화, 목, 금, 토 다섯 가지 자연물질의 색상에 대한 관찰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중국인의 색상관이 양면성을 띠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중국홍(中國紅)”이라고 부를 만큼 그 색의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여 상스럽고 경사스러운 색으로 여겨 왔다. 명절이나, 생일, 결혼 등 길(吉)한 날에는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봉투에 돈을 넣어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설날에는 빨간 종이에 길한 말을 써서 대문에 붙이는 등 사람도 집도 온통 붉은 색으로 장식한다. 중국의 국기 오성붉은기(五星紅旗) 역시 빨간색으로서 중국의 상징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31)</sup> 또 중국인에 있어서 빨간색은 왕의 예복에 사용됨으로써 고급스러운 의미가 있으며, 또한 태양을 상징하는 의미로 따뜻하고 행복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2)</sup>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과 연결되어 유채색 사용비율이 높으며 밝고 연한 색조를 제외한 전영역과 부드럽고 동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색상이 미지 전 영역에 분포하며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느낌과 역동적인 강렬함, 인위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색이 자연적이라고 하면 중국의 색은 인공적인 고명도, 고채도의 강한 원색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의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193명, 중국 상해 시 동화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176명과 홍콩 폴리텍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165명을 연

구대상으로 하였다.

#### 2. 조사기간 및 장소

한국에서는 2009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중국에서는 2007년 10월 18일부터 2008년 2월 2일까지 그리고 홍콩에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속옷 선호색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조사방법 및 측정도구

본 조사는 설문지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피조사자가 직접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내용은 주로 착용하는 속옷의 색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호하는 속옷의 색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 4. 자료처리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SPSS 1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중국과 홍콩의 여대생들의 속옷에 대한 선호색상을 알아보고 국가별 속옷에 대한 선호색상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 조사대상자의 연령범위는 18-24세로 평균 연령은 20.6세이며, 21세가 24.9%로 가장 많았다. 자신들이 인지하고 있는 신체치수에 대해 키는 평균 162.9cm, 몸무게는 평균 52.9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젖가슴둘레는 평균 84.4cm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족의 수입은 300-500만원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월평균 의복비 지출은 10-30만원이 37.8%로 가장 많았다.

중국 조사대상자의 연령범위는 17-24세로 평균 연령은 21.1세이며, 23세가 23.9%로 가장 많았다.

키는 평균 162.7cm, 몸무게는 평균 51.9kg으로 키는 한국 여대생과 비슷하지만 몸무게는 1kg정도가 적게 나가 중국 여대생이 더 날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젓가슴둘레 치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젓가슴둘레 치수 80-85cm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3,000-5,000 위엔이 30.7%로 가장 많았다. 가족의 월평균 의복비 지출은 200위엔 미만인 4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00-500위엔이 39.8%로 나타났다. 한국에 비해 중국의 경우가 월평균 수입 대비 의복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조사대상자의 연령범위는 19-27세로 평균 21.7세이며, 21세가 28.5%로 가장 많았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HKD10,000 이하인 경우가 90.9%로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나타냈다. 홍콩 여대생의 평균 가슴둘레는 평균 84.3cm로 나타나 한국, 중국 여대생 모두 비슷한 가슴둘레 치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연령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 중국 그리고 홍콩 여대생의 주로 착용하는 브라지어 색상과 선호하는 브라지어 색상에 대한 조사결과, 먼저 한국 조사대상자의 착용 브라지어 색상은 살색이 33.2%로 가장 많았으며, 흰색(21.2%), 검정(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색상에 대한 질문에서도 착용색상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가장 선호하는 색상은 살색으로 31.6%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검정색(25.4%), 흰색(17.6%)순으로 선호하였다. 실제로는 검정색보다 흰색을 더 많이 착용하지만 선호색상에서는 검정색이 많아 차이를 보였

으며, 착용색상에서는 빨간색을 착용하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으나 선호색상에서는 1.6%정도가 빨간색을 선택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중국 조사대상자의 착용 브라지어 색상은 살색이 가장 많아 한국 여대생과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검정색, 흰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빨간색을 착용하는 경우도 5.1%로 나타나 한국과는 차이를 보였다. 선호하는 브라지어 색상에 있어서는 검정색(23.9%)과 살색(23.3%)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흰색(18.8%), 빨간색(9.1%)의 순으로 나타나 실제로 착용하는 비율은 낮지만 빨간색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조사대상자의 착용 브라지어 색상에서는 검정색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핑크로 나타나 한국, 중국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자가 홍콩 여대생을 대상으로 3D Body scanning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홍콩 여대생들이 검정색 브라지어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브라지어뿐만 아니라 팬티의 경우에도 검정색을 착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홍콩 여대생들은 선호하는 브라지어 색상에서도 검정색이 57.0%였으며, 다음으로 흰색과 살색이 각 12.7%로 나타나 착용하는 색상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1>, <표 2>.

한국, 중국과 홍콩은 색의 사용과 해석에 있어 공통적으로 음양오행사상을 토대로 한 관념적 색상관념을 가지고 있어 풍수(風水), 무(巫)와 같은 민간사상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 우리 생활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었다.<sup>33)</sup> 한국과 중국에서 적색은

<표 1> 착용 브라지어 색상

(단위: 명(%))

선호색상	한국	중국	홍콩
흰색	41(21.2)	36(20.5)	14(8.5)
검정색	29(15.0)	41(23.3)	99(60.0)
살색	64(33.2)	48(27.3)	14(8.5)
빨간색	0(0.0)	9(5.1)	1(0.6)
기타	59(30.6)	42(23.9)	37(22.4)
합계	193(100.0)	176(100.0)	165(100.0)

양을 뜻하며, 남쪽, 불을 뜻하는 색으로 악귀나 음을 쫓는 의미로 여겨졌다.

중국의 한족은 붉은 색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주술적인 의미와 태양 및 피의 색이라고 여겨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자는 적색을 바른 색이라고 하였는데<sup>34)</sup> 이런 사상은 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행연구<sup>35)36)37)38)</sup>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빨간색에 대한 혐오도가 매우 높았다. 빨간색이 행운을 뜻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공격성과 전쟁, 위험과 금지를 상징하는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 색상관에 있어서 빨간색을 매우 귀하게 여겼었지만, 6. 25전쟁을 겪고 국토가 남과 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단이 되면서 빨간색을 투쟁, 전투, 혁명, 위험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빨간색 = 공산주의’라 할 만큼 인식적 연관성을 갖게 되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그들의 상징색인 빨간색으로 대치하면서 ‘레드 콤플렉스’를 갖게 되었다.<sup>39)</sup>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흰색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사실로 백의민족으로서 흰색을 숭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나라의 색상에 관한 선호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래의 색상에 대한 감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통적인 색상 선호도가 산업화와 글로벌화 등 시대의 변화와 패션 트렌드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대에 와서 조금씩 변화되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패션도 이런 영향을 받아 선호색상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데, 속옷 색상 특히 브라지어 색상에 있어서 한국 여대생의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색상인 살색과 흰색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선호하여 전통적인 색상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색상 선호도를 나타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빨간색에 대한 선호가 높기는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서구 문명의 영향과 글로벌화를 통해 속옷 색상에 있어서는 살색과 검정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중국 여대생의 면접조사 결과, 빨간색 속옷이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속설이 있어 음력 1월 1일이나 생일날에는 아직도 빨간색 속옷을 많이 착용하는 것

로 나타났다. 또 많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빨간색 속옷을 착용하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전통적인 색상관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콩은 중국과 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여대생과는 다른 색상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냈다. 비록 같은 중국 민족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일찍 서구문명과 다른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중국 본토 사람들과는 다른 색상관을 갖게 되어 선호하는 색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서구문명에서 검은색은 모던함과 세련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 오랫동안 서구의 지배를 받아온 홍콩의 경우에는 60%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이 검은색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검정색의 경우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선호되어 온 색상으로 선(禪)미학의 공(空)의 개념에 바탕을 둔 일본의 미로도 설명되어진다. 이런 일본 문화도 홍콩의 색상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중국과 홍콩의 여대생들의 속옷 중에서도 브라지어에 대한 선호색상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국가별 속옷에 대한 선호색상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색은 언어와 지역문화, 종교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한 국가 또는 문화권의 사상과 이념, 의식, 제도, 관습 등이 기호화되어 나타난 요소이기 때문에 각 시대별 특성이나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 중국과 홍콩 여대생은 속옷에 대한 착용색상 및 선호색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은 착용색상과 선호색상에 있어 살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홍콩 여대생의 경우 60%정도가 검정색을 주로 착용하며 선호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한국 여대생에서는 한명도 나타나지 않는 빨간색에 대한 선호가 중국과 홍콩 여대생에서는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한국, 중국과 홍콩이 모두 전통적인 색상관은 음

양오행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같았으나 사회문화적 요인과 정치적, 이념적인 영향 등에 의해 현대에는 각기 다른 색상관을 갖게 되어 선호색상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유교적인 엄격한 위계적, 관념적 질서에 따라 색이 사용되어져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속옷의 색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 겉옷을 입었을 때 가장 표시가 나지 않는 살색과 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백색과 담색조의 색상을 주로 입어 왔던 우리나라의 색상 선호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오방색을 중심으로 강렬한 원색계열의 채도가 높은 빨간색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화 되면서 유행색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여 전통색에 대한 이미지도 조금씩 퇴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속옷의 착용 및 선호색상에 있어서도 빨간색의 비중은 매우 낮아지고 흰색과 살색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홍콩의 경우에는 중국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의 영국의 지배와 일본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으로 중국과는 다른 색상관을 보였다. 속옷 선호색상에 있어서도 검정색에 대한 선호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중국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브라지어에 대한 착용색상과 선호색상에 국한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대학생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좀 더 다양한 계층과 아이템에 대한 선호색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권영결(2005), *한중일에서 적색(Red)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NRF), p.5.
- 2) 권은숙(1995),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 웅진출판주식회사, pp.17-19.
- 3) Eckman, D.M., Kadolph, S.J. (1990),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ng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pp. 13-22.

- 4) B.G. Chambers(1951). *Color and design*, NY:Prentice Hall, p.109.
- 5) 김순애(1987), “아동복의 색채와 기호색에 대한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조정미(1999), “지역특성에 따른 성인 여성의 복식색채 선호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9(1), pp.129-143.
- 7) 반홍우·최종명(2012),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빨간색 셔츠에 대한 시각적 감성 비교”, *감성과학*, 15(1), pp.57-64.
- 8) 은영자·박소희(1996), “20대 남녀의 의복색상 선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3), pp. 305-323.
- 9) 배수정(2011), “중국 동북지역 다렌시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컬러트렌드 분석(제2보)”, *패션비즈니스*, 15(5), pp. 161-177.
- 10) 최미영·심영완·신혜영(2006), “BRICs 지역 소비자 색채선호 비교”, *복식*, 56(5), pp.118-131.
- 11) 오현아·김윤아·배수정(2012), “2010/11년 F/W 겨울 서울시와 다렌시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여성 의복색 비교 분석”, *복식*, 62(2), pp.103-121.
- 12) 백선원(1990), “여성 의류의 색채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Birren, F. 김화중 역(1985),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pp.67-82.
- 14) Ellis, L. & Ficek, C.(2001), "Color pre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pp.1375-1379.
- 15) Silver, N. C., McCulley, W. L., Chambliss, L. N., Charles, C. M., Smith, A. A., Waddell, W. M., & Winfield, E. B. (1988). Sex and racial differences in color and number preferenc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6,

- pp.298-299.
- 16) Mather, J., Stare, C., & Breinin, S. (1971). Color preferences in a geriatric population. *Gerontologist*, 11, pp.311-313.
  - 17) Tate, F. B., & Allen, H. (1985). Color preferences and the aged individual: implications for art therapy. *Arts in Psychotherapy*, 12, pp.165-169.
  - 18) Wijk, H., Berg, S., Sivik, L., & Steen, B. (1999). Color discrimination, color naming and color preferences in 80-year olds. *Aging: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1, pp.98-106.
  - 19) 김용훈(1987), *색채 상품 개발론*, 청우, PP.117-149.
  - 20) 백선원(1990), op.cit., pp.23-26.
  - 21) 장지명(1999), “감성시대의 칼라마케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 22) 김관웅(1997), “중국의 조선족과 한족의 색채심리 비교연구-민족과 예술에서 색채심리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15호, pp.575-581.
  - 23) 오은경(1990), “한국인의 색채의미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5-72.
  - 24) 백선원(1990), op.cit., p.20.
  - 25) 원혜정(2009), “국가별 선호색채와 TV세트 디자인 색채의 상호관계성 연구”,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27.
  - 26) 은영자·박소희(1996), op.cit., p.311.
  - 27) 이원신(2007), “한국 전통 색채를 이용한 컬러 마케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8.
  - 28) 통상산업부(1996), *한국적 디자인의 응용사례 연구*, 서울·통상산업부, p.251.
  - 29) 최미영·심영완·신혜영(2006), “BRICs 지역 소비자 색채선호 비교”, *복식문화학회지*, 56(5), pp. 118-131.
  - 30) 김지영·김선아(2012), “한국·중국·일본의 현대 에스닉 패션 색채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1), p.95.
  - 31) 김향단·유보현(2010), “중국인의 색채관과 복식에 나타난 색채의 상징과 의미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1(3), pp.105-112.
  - 32) 반홍우·최종명(2012), op.cit., pp.57-64.
  - 33) 권영걸(2005), op.cit., pp.10-12.
  - 34) 김관웅(2002), op.cit., pp.575-581.
  - 35) 김영철((1979), “색채응용 및 기호심리에 대한 조사 연구-대구지방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1-46.
  - 36) 문순만(1982), “색상의 이해 및 기호도에 관한 연구-대구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9.
  - 37) 이금숙(1991), “청년기의 의복색 기호와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4-37.
  - 38) 오은경(1990), op.cit., pp.35-72.
  - 39) 권영걸(2005), op.cit., pp.14-15.
- 
- 접수일(2012년 8월 20일),  
수정일(1차 : 2012년 9월 7일),  
게재확정일(2012년 9월 17일)